

IMO 소식 & 국제해사동향



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
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
Maritime Safety Cooperation (KMC)

※ 본 자료는 KMC 활동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

01

IMO 소식

IMO, 선원의 날 기념



〈2024년 6월 25일 선원의 날, 출처: IMO〉

- 6월 25일 선원의 날을 기념해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전 세계 200만 선원에게 경의를 표함.
 - ▶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최근 해적 및 분쟁지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선원들의 희생을 언급하며, 홍해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을 추모하고,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.

-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역시 연설을 통해 필수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강조하며, 경의를 표하고 안전을 지켜줄 것을 요청함.
- 한편, IMO는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 선원의 안전에 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해사 안전에 관한 SNS 캠페인을 시작하였음.
 - ▶ 선원들은 페이스북, 링크트인, X(과거 트위터), 또는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‘SafetyTipsAtSea’ 해쉬태그를 사용하여 해사안전에 관한 인식 제고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았음.
 - ▶ 또한, IMO는 해사 관련 기구, 선사 및 관계자들에게도 캠페인 동참을 요청함.

김 현 중 영문에디터
kem5651@imkmc.or.kr

IMO 공지

[회의 및 행사 공지]

- (사무국) 세계 해양의 날 기념, IMO 건물 및 랜드마크 조명 행사 진행(CL.4885, '24.6.12.)
 - ▶ IMO는 2021년부터 세계 해양의 날(9.26.)을 기념하여 IMO 건물 및 선원 기념비, 전 세계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파란색으로 밝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.
 - ▶ 동 행사는 매년 달라지는 세계 해양의 날 주제*를 홍보하고, 전 세계 해양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등 해운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됨.
- * 2024년: Navigating the future: safety first!(미래를 향한 항해: 안전 우선!)
 - ▶ IMO는 회원국, 기타 기구에 동 연례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상징적인 건물, 항구, 선박, 기념비, 박물관 및 기타 랜드마크를 파란 조명으로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음.
- (사무국) 제16차 런던협약·의정서 과학그룹회의(LP-CG 16) 개최 알림(CL.4862, '24.4.15.)
 - ▶ LP-CG 16 회의가 '24.10.24.(목)~10.25.(금) 기간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(문서 제출 마감일: '24.7.26.).
 - ▶ 동 회의에서는 준수장벽 제거사업(B2C project: Barrier to Compliance Project), 과거 문서 LC/CP 홈페이지 제공 검토, 규정 준수 홍보 및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, 자세한 잠정 의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.
- (사무국) 제74차 기술협력위원회(TC) 기간 중 기술협력 비공식 워크숍 및 전시회 개최(CL.4884, '24.6.10.)
 - ▶ IMO는 '24.6.27.(목) 09:30-12:30에 IMO 본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워크숍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음.
 - ▶ 동 회의에서는 회원국별 IMO의 기술협력사업 지원, 기술협력이행국(TCID) 조직개편, IMO LEARNS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, 자세한 주제는 회람문서 부록을 참조.

[회의 및 행사 공지]

- (필리핀)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선원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결의서 초안 제출 예정 알림(CL.4886, '24.6.12.)
 - ▶ 유엔 인권이사회는 '24.6.18.(화)~'24.7.12.(금)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, 필리핀 정부는 선원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.
 - ▶ 필리핀 정부는 각국 공관에 동 결의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, 자세한 결의서 내용은 회람문서 참조.

- (우크라이나) IMO에 아조프해의 불법 영업 선박에 관한 문서 회람 요청(CL.4887, '24.6.13.)
 - ▶ 주영국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아조프해에서 불법 영업 중인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(AIS)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규탄하며, 이는 SOLAS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IMO에 문서 회람을 요청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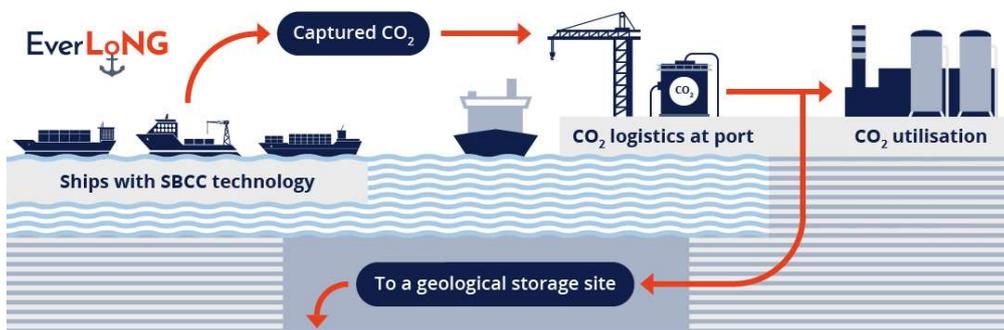
02

국제해사동향

EverLoNG, LNG 추진선에서 두 번째 탄소포집 시연

(출처 : Offshore Energy, '24.5.31.)

- 2024년 6월, EverLoNG 프로젝트*는 LNG 추진 크레인선 Sleipnir호에서 두 번째 탄소포집기술 시연을 진행함. 동 선박에는 네덜란드의 Carbotreat와 VDL Carbon Capture가 공동으로 개발한 선박기반탄소포집(SBCC, Ship-Based Carbon Capture) 프로토타입이 설치됨.
 - * 노르웨이, 네덜란드, 독일, 영국 등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, LNG 추진선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운항하여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함
 - ▶ 첫 번째 시연은 2024년 2월 TotalEnergies가 용선한 LNG 추진 LNG 운반선 Seapeak Arwa호에서 이루어졌으며, 85%의 이산화탄소 포집률을 기록함.
- Sleipnir호는 출항 후 5주 동안 총 500시간에 걸쳐 SBCC 프로토타입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며,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특별히 설계된 컨테이너에 액체 형태로 저장됨. 시연이 종료되면 컨테이너를 하역한 후 이산화탄소를 산업 현장으로 운송하여 활용하거나 지질층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계획임.



〈 EverLoNG의 선상탄소포집 프로젝트 개요, 출처: EverLoNG 〉

- EverLoNG 연구원들은 SBCC 프로토타입이 제공하는 육상 원격 성능 모니터링 및 감독 기능을 활용하여 SBCC가 선박 인프라 및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, 이산화탄소 포집 속도 및 배기가스 불순물이 포집 용매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함.

- Sleipnir는 LNG로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선 중 하나로, 이번 시연을 통해 대규모 해양 플랜트에서 SBCC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 또한, 동 프로젝트는 해운 부문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, 향후 선상탄소포집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.

이정윤 연구원
jylee@imkmc.or.kr

한화오션,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1억 달러 인수 합의

(출처 : Lloyd's List, '24.6.21.)



〈 필라델피아 필리(Philly) 조선소 전경, 출처: 한화그룹 〉

- 2024년 6월 20일, 한화오션은 노르웨이 산업 투자회사 'Aker' 로부터 필라델피아 남쪽 델라웨어 강변에 위치한 '필리(Philly) 조선소'를 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함.
 - ▶ 1997년에 설립된 '필리(Philly) 조선소'는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업용 선박을 생산하며, 미국 해양청(MARAD)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및 해양풍력설치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음.
- 한화오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자사의 ECS(통합제어장치)* 및 IAS(선박자동제어시스템)** 기술을 '필리(Philly) 조선소'의 상선 라인업과 접목할 계획이며, '필리(Philly) 조선소'의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무인 수상정이나 함정 등 특수선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.

* Engine Control System : 선박의 기관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, 연료소비를 최적화하는 등 전반적인 기계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.

** Integrated Automation System : 선박의 다양한 기계적 및 전기적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선박통합시스템

- 이번 계약은 한화오션이 미국 시장에 한국의 해군 시스템과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, 향후 수십 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특수선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미국의 델 토로 의원은 “한화오션이 미국 해안에 설립된 최초의 한국 조선소라는 점을 축하하며, 이번 진출이 한국 조선 산업의 미국 내 확장의 첫걸음이 될 것”이라고 언급함.

노근택 연구원
gtro@imkmc.or.kr

노바텍(NOVATEK), 올해 첫 북극항로 LNG 선적

(출처 :TradeWinds, '24. 6. 24.)

-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노바텍(NOVATEK)이 자국 야말(Yamal)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북극(Northern Sea Route) 항로*를 통해 올 시즌 첫 상업운항을 시작했음을 발표함.

* 북극항로는 러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운송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노바텍은 수출용 LNG를 북극항로를 통해 시장에 내놓으려고 계획하고 있음. 빙해역을 운항하는 상업선박에 대한 등급으로는 Ice 1~3, Arc 4~9로 구분하며 노바텍은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수입국들에게 더 많은 LNG를 운송하기 위해 2m두께의 얼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아크-7 아이스클래스급(Arc7 Ice-class) 쇄빙 LNG선을 투입할 계획임.

-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2017년에 건조된 Eduard Toll호는 6월 20일 Novatek의 Yamal LNG Sabeta 터미널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6월 30일에는 약 15노트의 속도로 랍테프 해(Laptev Sea)로 향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보도함. 정확한 목적지는 아직 미정이나, 예상 도착일은 7월 16일경이며 아시아 지역으로 알려짐.

▶ 미국은 Arctic LNG 2*를 포함하여 러시아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LNG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음.

* 북극권 위 Gydan 반도에 위치 한 Utrenneye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는 러시아의 대규모 LNG 개발프로젝트임. Novatek이 이 프로젝트의 지분 60%를 소유하고 있으며, 프랑스 에너지기업(TotalEnergies), 중국천연가스공사 CNPC, 중국해양석유그룹(CNOOC), 일본 Mitsui 및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 등 4곳이 10%씩 소유.

▶ 또한, 유럽연합이 자국 터미널에서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기 위해 러시아산 LNG의 환적을 금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러시아는 아시아로 직접 LNG를 선적하기 위해 북극항로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.

- 이번 항해로 Eduard Toll호는 올 여름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향하는 동부 항로를 횡단한 최초의 LNG 운반선이 되었으며, 러시아 언론은 이 선박이 60MW급 원자력 쇄빙선 Sibir호의 호위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함.

▶ Eduard Toll호 외에도 Gazpromneft Shipping의 쇄빙선인 Sturman Skuratov호(41,401 dwt)가 6월 14일 콜라 베이(Kola Bay)를 출발하여 Eduard Toll호보다 앞서 아시아로 항해하고 있음. 두 선박은 쇄빙선의 지원을 받아 북극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.

이정은 전문연구원
jelee47012@imkmc.or.kr